우암학원 창학 73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71 SINCE 1952

FELICE 승원 팰리체
승원건설그룹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017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4월 13일 2023년 6월 1일 목요일

금계국 만발… 영산강의 여름 수채화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초여름 날씨를 보인 지난 31일 오후, 나주시 노안면 승촌보 인근 하천이 만개한 금계국과 물 위를 나는 백로가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연출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문화 자원 수도권 독점 지방소멸 부추긴다

사라지는 지방 막을 수 없나

〈12〉 문화 격차는 삶의 질 격차

문화활동 현황·삶의질 격차 조사
광주, 연극 공연 광역시 중 최하위
전남, 문화활동 건수 전국 12위
미술관·도서관 수도권 40% 넘어
문화 차 두고 소멸 문제 해결 못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 20년간 무려 380조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 추세는 개선되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무려 102개 가량이 인구 소멸위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지방 소멸이 현실로 다가왔다.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삶의 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로 '문화 격차'다. 각종 통계에서 보듯 수도권 위주의 자원 독점이 초래한 문화 격차를 개선하지 않고는 지방소멸의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견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3월에 발표한 '2021년 문화예술 활동 현황조사'에 따르면 광주는 '문화예술 활동 건수'에서 902개로 서울을 제외한 5대 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했다. 서울이 1만2533으로 가장 문화예술 활동 건수가 많았고 다음으로 대구가 2위(2062), 부산이 3위(1856)을 차지했다. 인천은 1131건으로 4위를, 대전은 1001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 도시'를 자처하고 있는 광주는 공연예술 가운데 연극 93건, 양악 323건으로 5대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로 집계됐으며, 시각예술은 4위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활동 건수가 저조했다.

전남의 경우는 문화예술 활동 건수가 814개로 17개 시도 가운데 12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양악의 경우 전남은 9개 도와 비교했을 때 154건으로 8위 , 무용 또한 20건으로 8위를 기록하는 등 최하위권으로 집계됐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전국적으로 시각예술 전시는 총 1만3364건이 진행됐다. 그 가운데 서울에서 5609건의 전시가 열려 전체 전시의 약 42%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1602건), 부산(806건), 대구(759건) 순이었다.

공연예술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는데 서울이 69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1920건), 대구(1303건), 부산(1050건)이었다. 특히 서울은 양악 3874건, 연극 1754건으로 타 장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공연이 진행됐다.

아울러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 활동 건수'에서는 광주는 서울을 제외한 5대 광역시 가운데 3위(62.6)를, 전남은 17개 시도 가운데 44.4개로 13위를 기록했다.

지역 간 문화 격차는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국토연구원이 2022년 7월 발표한 '지역간 삶의 질 격차: 문화·보건·교육'에 따르면 광주는 도서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 인프라를 포함해 공연 횟수 등이 최하위 수준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문화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는 국·공립 도서관(2021년 기준)은 광주가 24개에 불과해 전국 평균 69개에 비해 35% 수준이었다. 이 밖의 문화시설도 전국과 비교해 광주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미술관 14개를 비롯해 문화예술회관 7개, 지방문화원은 5개에 머물렀다. 그에 비해 전국 평균은 각각 18개, 15개, 14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돼 광주는 전국 평균의 크게 못 미쳤다.

문화시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분야는 문학 분야다. 전국에 약 140여 개 문학관이 있지만, 5대 광역시 중 광주만이 문학관이 없다. 140여 만 대도시에 문화의 가장 기본 요소인 문학관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 인프라가 부실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전체적으로 문화기반시설 중 미술관, 도서관은 경기(54개, 287개)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47개, 191개)이 다음을 차지해 수도권이 비중이 약 40%, 45%를 차지했다.

눈에 띄는 조사 가운데 하나는 도서관 접근성이었다. 전남은 도서관 접근성이 17개 시도 가운데 14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도보로 100분(10분당 750m)을 걸어야 도서관에 갈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낮았다. 그에 비해 서울은 걸어서 14분이면 도서관에 당도할 수 있을 만큼 접근성 면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문화계 인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비해 뒤떨어진 지역의 문화 인프라 수준은 자연스레 문화 향유와 같은 삶의 질, 문화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문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목포~무안 남악 '트램' 운영
광주~영암 '아우토반' 건설
'서남권 SOC 신 프로젝트' 비전

목포 도심을 비롯, 무안 남악을 오가는 '트램'이 운영되고 독일 아우토반 형태의 광주~영암 간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추진된다. 부족한 전남 서남권 기반시설을 확충,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31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박홍률 목포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김성훈 무안부군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남권 SOC 신(新) 프로젝트' 비전을 발표했다.

서남권 SOC 신 프로젝트는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 '목포 구도심~하당~무안 남악~오룡' 구간을 잇는 전남형 트램을 도입하는 계획이다.

아우토반은 광주 승촌 IC~서영암IC까지 47㎞의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를 건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및 슈퍼카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도록 하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권 대선 공약인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전남도는 아우토반이 건설되면 서영암IC부터 인근 영암 F1 경주장까지 이어지는 기존 도로(길이 16.3㎞)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고속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서남권 경제·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여기에 영암 대불산단~목포 삼학도 남동항을 잇는 해상교량(길이 2.5㎞)도 건설, 광주~영암~목포를 잇는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건설에 2조6000억원, 해상교량 1900억원 등 2조 7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목포와 무안을 오가는 전남형 트램은 목포 구도심~하당~남악~오룡 신도시 간 총연장 15.7㎞를 연결해 목포·무안의 신개념 교통수단 및 관광명물로 활용될 계획이다. 오는 2035년까지 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영록 지사는 "서남권 SOC 확충으로 지역 관광산업,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목포, 무안, 영암과 적극 협력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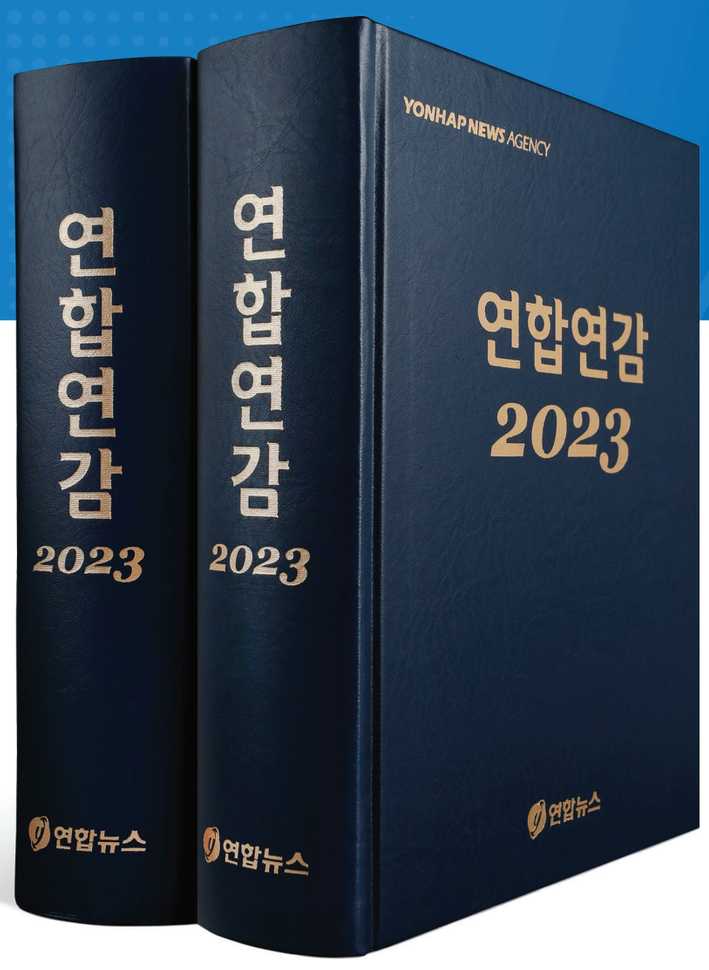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지난해 국내·외 뉴스가 한 권에
2023 연합연감 출간

연합연감 홈페이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발행하는 대한민국 종합 사료집 '2023 연합연감'이 출간됐습니다.
'2023 연합연감'은 170여 명의 필진이 참여해 지난해 국내·외 분야별 주요 뉴스와 이슈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했습니다.
핫뉴스를 다룬 '초점'에서는 청와대를 떠나 용산 시대를 개막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종합적으로 다뤘습니다.
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초연결 사회의 허점을 드러낸 카카오 장애, 부동산 급락 등 대형 이슈와 사회·경제적인 과제를 짚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월드컵 16강 진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세계를 선도하는 K-컬처 등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사건·사고를 일지별로 정리해 충실함을 더했습니다.
특히 주요 뉴스와 이슈에 사진, 도표, 각종 통계, 그래픽 등을 함께 편집해 지난 1년간 일들을 한눈에 보도록 정리했습니다.
자료 편에는 통계, 일람, 주요 연설·발표문, 국회 본회의 의결 법안,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등 다양한 자료를 수록했습니다.
북한 편에서는 연합뉴스가 독점 배포하는 조선중앙통신사 뉴스와 조선중앙TV 보도 등을 토대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급변하는 북한의 정세와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설문, 북한 10대 뉴스, 일지, 연표 등도 담았습니다.
또 김주애, 김여정 등 지난해 조명받은 주요 인물 정보와 같은 특수 콘텐츠를 수록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입법·사법·행정부와 각종 공공 기관에 연합연감을 무료로 기증합니다.

규격 4×6배판 양장본
분량 1천336쪽 정가 18만원